

예술의전당 공연 & 음악감상아카데미

2018 여름특강

*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기간 7월4일(수)~7월31일(화) / 4주(주1회)
 접수기간 2018년 6월 5일(화) 오후2시부터 선착순 접수
 장소 컨퍼런스홀 / 음악아카데미홀
 문의 02) 580-1451, 1453

— 송원진의 ‘러시아 클래식’

개강 : 7월10일(화요일)10:00-12:00 / 4주(주1회) 장소 : 음악아카데미홀 수강료 : 100,000원

17년간 모스크바에서 수학한 진정한 ‘러시아 클래식 스페셜리스트’가 진솔하게 들려드리는 러시아 음악. 일부 곡들은 피아니스트 송세진의 연주와 DVD 영상으로 감상한다.



송원진

- 바이올리니스트, 문학평론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예원학교, 모스크바 국립 차이콥스키 음악원
-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제27회 주목할 예술가상,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 저서 <러시아 문학과 오페라>, <바람부는 날 클래식을 만나다>, <불멸의 사랑이야기>, <당신이 함께 있기에 외롭지 않다> 등

<연주자> 송세진 (Piano)

- 피아니스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출강
- 모스크바 국립 차이콥스키 음악원 박사
-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제27회 주목할 예술가상,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 저서 <불멸의 사랑이야기>, <창의학 콘서트>

일자	회차	강의내용
7/10	1강	P. I. Tchaikovsky <The Seasons>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성격적 회화(Characteristic Picture)’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차이콥스키의 <사계>. 겨울의 나라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그려내는 ‘사계’는 어떤 그림일까? 연주 : 송세진(피아니스트)
7/17	2강	P. I. Tchaikovsky <Evgenii Onegin> - ‘Dmitri Hvorostovsky’를 추모하며 ‘세계 3대 바리톤’으로 꼽혔던 러시아 출신 오페라 가수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가 55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가장 ‘오네긴’ 다웠다.”라는 그의 모습을 통해 21세기 오네긴의 환생을 경험하며 성악가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에 아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흐보로스토프스키를 추모한다.
7/24	3강	S. Prokofiev <Cinderella> 최고의 발레리나 갈리나 울라노바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작품으로 프로코피예프의 발레곡 중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7/31	4강	A. Borodin ‘러시아 국민악파5인조’ 중 한 명으로 화학자이자 작곡가인 보로딘의 이중 생활은 어떠했을까? 오페라, 교향곡, 현악사중주 등 여러 장르에서 활약한 그의 작품을 통해 보로딘의 음악적 열정을 감상한다.

— 황장원의 ‘최고의 명문 교향악단과 그들의 공연장’

개강 : 7월4일(수요일)10:00-12:00 / 4주(주1회) 장소 : 음악아카데미홀 수강료 : 100,000원

올 여름에는 유럽 최고의 명문 교향악단들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그들의 공연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특징을 짚어보면서 이들이 이른바 ‘3대 교향악단’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아보고, 각 악단을 이끈 거장들이 남긴 주요 영상물을 감상한다. 또 마지막 시간에는 ‘사이먼 래틀’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런던과 파리의 명문 교향악단들과 그들의 공연장을 일별해본다.



황장원

-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 서울시향(SPO) 공연프로그램노트 정기기고
- 네이버(Naver) ‘오늘의 클래식’ 필진
- 성남아트센터, 부천필 감상강좌, 무지크바움, 풍월당 등지에서 강의
- 무지크바움 실장 역임, 한국 바그너협회 사무간사 역임

일자	회차	강의내용
7/04	1강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7/11	2강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카라얀 서커스
7/18	3강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암스테르담 콘서트 빌딩
7/25	4강	런던과 파리의 명문 교향악단과 공연장

—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개강 : 7월6일(금요일)10:00-12:00 / 4주(주1회) 장소 :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 수강료 : 100,000원

<파워클래식>의 저자 조윤범이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이야기. 바이에른 왕 루트비히 2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작할 수 있었던 바그너, 국민주의 음악을 확립한 러시아5인조, 교향곡 ‘신세계로부터’의 주인공 드보르작,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영원한 라이벌 라벨의 삶과 작품 세계를 재조명한다.



조윤범

-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 리더
- 한국일보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칼럼 기고
-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교사 역임
- 저서 :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1,2권>, <나는 왜 감동하는가> 등

일자	회차	강의내용
7/06	1강	바그너(W. R. Wagner, 1813~1883) 베르디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전위적인 오페라를 작곡한 바그너. 최근 개봉한 영화들과 게임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다시 주목받는 그의 오페라들과 더불어 스캔들 가득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여다보자.
7/13	2강	러시아5인조 차이콥스키와 대립각을 세우며 러시아에서 국민음악을 내세운 ‘러시아5인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음악적 결성과 해체과정, 그리고 매력적인 동양적 선율을 승화시킨 그들의 음악을 소개한다.
7/20	3강	드보르작(A. Dvorak, 1841~1904) 체코의 민족주의 음악은 스메타나에 의해 출발하고 드보르작에 의해 완성되었다. 유모레스크와 신세계로부터 교향곡과 같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부터, 숨겨진 실내악과 오페라까지 그의 음악세계를 모두 여행하자.
7/27	4강	라벨(M. Ravel, 1875~1937) 드뷔시의 대를 이어 인상주의 음악을 완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벽을 넘어선 라벨은 학교와 거리를 두며 프랑스 음악계를 뒤흔든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 이른바 ‘라벨사건’과 볼레로와 같은 스페인음악의 동경을 알아보자.